

선후배간 동료교수법 적용한 수업에서 선배 참여 경험: 현상학적 연구

이윤주¹, 양정하^{2*}

¹재능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²수원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Experiences with senior tutor in peer education methods between seniors and juniors: A Phenomenological Study

Yun Ju Lee¹, Jeong Ha Yang^{2*}

¹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JEI University, Korea

²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uwon University, Korea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선후배간 동료멘토링을 적용한 기본간호학 실습 수업에서 선배로 참여한 간호대학생의 경험을 확인하여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2023년 12월 18일부터 2023년 12월 22일까지 간호대학생 8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시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Colaizzi의 현상학적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선배 참여 경험은 '자기기여', '자기부담', '자기성장'의 3가지 범주가 나타났다. 추후 간호대학생의 긍정적인 선배 참여를 위해서는 적합한 수업설계, 교수자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교수법, 간호교육, 경험, 현상학적 연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and understand the essence of the experiences of nursing students who participated as senior mentors in a peer mentoring-based fundamental of nursing practicum.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eight nursing students from December 18 to December 22, 2023, and analyzed using Colaizzi's phenomenological method. The study's finding derived 3 categories. The specific categories were 'self-contribution,' 'self-burden,' and 'self-growth.' For the positive engagement of senior students in the future, appropriate course design and active support from instructors are necessary.

Key Words : Nursing Student, Teaching method, Nursing Education, Experience, Phenomenological study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1.1.1 신뢰도

선후배간 동료학습은 동료교수법의 일종으로 나이가 많은 동료교수자가, 그에 따른 경험의 차이로 능력을 발휘해 학습자를 돕는 형태를 말한다[1]. 폭넓은 지식과 경

험을 갖춘 선배가 동료교수자로 후배를 교육하면, 선후배간 서로 돕는 분위기 속에서 서로 성장하는 경험을 할 수 있어 핵심간호술 훈련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고려되고 있다[2]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적용한 선후배 동료학습은 비판적 사고성향[3], 자기주도적 학습 전략[4], 술기 수행 자신감[4], 술기수행 능력[4]과 임상수행능력[3]의 향상을 보고하고 있어 간호대학생의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교신저자 : 양정하(mint2243@hotmail.com)

접수일 2025년 04월 28일 수정일 2025년 05월 31일 수정완료일 2025년 06월 10일

측면의 다양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3,4]

한편, 정맥주입요법은 입원한 대상자에게 가장 흔하게 적용되는 침습적 간호 행위로, 간호사는 정맥주입요법을 위한 명확한 지침을 이해하고 수행하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5]. 이에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는 ‘정맥수액 주입’을 간호학과 교육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학습되고 성취되어야 하는 중요도가 높은 항목인 핵심간호술로 지정하여 간호대학생의 졸업 시점에 성취를 평가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6]. 정맥수액주입과 같은 복잡한 간호는 단순 반복으로 숙달이 어렵고[7], 핵심간호술에 대한 재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수행능력을 높인다고 하여[8], Yeom과 Choi[9]는 대학에서는 실습 교과 운영뿐 아니라 자율실습 등의 운영을 통해 반복적인 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동료교수법[10], 스마트 폰 동영상 촬영[11], 이미지 상상훈련[12] 등의 교육방법을 통해 실습의 효과를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Kang과 Seo[2]는 핵심간호술 훈련에 선후배 동료학습을 참여한 선배의 경험을 분석하여 ‘교육과 술기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선배 동료교수활동’, ‘후배들과 윈윈하는 술기교육현장’, ‘선배 동료교수자가 되기 위한 훈련과 피드백’, ‘자아성찰을 통한 발전’의 주제를 도출하였으나, 동료학습 경험의 그 본질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색할 후속 연구를 제안하고 있다.

이에, 정맥주입요법을 교육한 선배 간호대학생의 경험을 현상학적 접근으로 분석함으로써, 그들의 내면적 인식과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교육에서 선후배 멘토링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실증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간호학생의 리더십 함양 및 동료 학습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교수학습 전략 수립에도 기여할 수 있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기본간호학 실습 교과목에서 선후배간 동료교수법의 선배로 역할을 수행한 간호대학생이 경험한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Colaizzi[13]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적용한 연구이다. Colaizzi의 현상학적 방법은 연구 참여자 개인의 경험적 진술을 일반적 형태로 재진술해 가면서 전체 참여자의 공통적 경험의 본질적 구조를 기술하는데 초점을 두어 집단 전체의 공통된 의미와 패턴을 확인하는데 더 적합한 방법론[14]으로 본 연구에서 선

배로서 멘토링을 통한 공통적 경험을 파악하기에 유용하다고 판단되어 적용하였다.

2.2 선후배간 동료교수법 수업방법

본 연구에서 선후배간 동료교수법 수업 적용은 정맥수액요법 술기에 대해 간호대학 3학년 선배가 2학년 후배에게 총 8시간 동안 실습 지도를 시행하는 경험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선배는 사전에 ‘정맥 수액요법을 위한 말초 혈관부위 선정, 정맥 울혈방법, 카테터 삽입 기술, 합병증 관리, 정맥관 고정법에 대한 이론 수업을 2시간 듣고, 정맥수액 주입 술기에 대한 연구자에 의한 일대일 실습을 8시간 제공받은 상태로 술기 수행에 대한 자신감에 높은 상태였다. 선배 1인당 후배 4~5명이 배정되어 정맥 수액 주입 술기에 대한 시범 및 수행 절차의 과학적 근거를 설명하거나 노하우를 공유하도록 하였다. 교수자는 실험중재 기간 동안 선배 또는 후배들의 질의에 응답하거나 후배가 수행하고 있는 술기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2.3 연구참여자 선정

S대학 간호대학생 중 선후배간 동료교수법을 적용한 기본간호학 수업에서 ‘선배’로 참여한 자 중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수는 자료의 포화(saturation)를 고려하였다. 대상자의 성별은 여성 7명, 남성 1명으로 총 8명이 선정되었고, 연령은 22세 5명, 23세 2명, 25세 1명이었다. 참여자 중 가장 선호하는 수업방식은 강의식 5명, 토의식 1명, 시범 또는 실습 2명이었다. 참여자 중 3명은 친구나 후배를 가르친 경험이 있었다.

2.4 연구자 준비

본 연구자는 질적연구와 관련된 학회 및 세미나에 매년 참석하고 연 1편 이상의 질적연구를 게재하였다.

2.5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간호학과 홈페이지에 참여자 모집 공고문을 2023년 9월 4일 게시하였고 자발적으로 신청한 간호3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 18일부터 2023년 12월 22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기반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자료 수집하였다. 구조화된 설문 문항은 연구자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현상학적 방법론을 기반으로 다양한 질적연구를 진행한 동료 교수자 2인에

게 문항의 적절성을 검토받았다.

연구자는 면담 전 연구참여자에게 면담 내용이 녹음된다는 점과 녹음된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 예정이고 모든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종료 후 즉각적으로 폐기될 것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에 대해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며 그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음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았다.

참여 학생과의 심층 면담 시 '선후배간 동료교수법을 적용한 기본간호학 실습 수업에서 선배로서 어떤 경험을 하였습니까?'라는 개방형의 질문을 시작으로 참여 학생의 답변을 들으며 선배로서 수업 시작을 하기 전부터 교육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의 느낌이나 생각을 원활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비구조화된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별 상담은 최소 40분에서 최대 1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현장 노트를 사용하여 면담 시 관찰되는 내용이나 당시 연구자의 생각을 적었다. 필요한 경우에 추가되는 질문은 전화로 상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직후 연구참여자의 언어적 표현을 가감 없이 그대로 기록으로 필사하고 녹음 내용은 청취를 반복하여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깊이 있게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다.

면담 종료 후 연구참여자에게 면담에 대한 감사의 인사와 함께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2.6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현상학적 분석 중 Colaizzi[13]의 방법을 사용하여 우선 연구참여자들의 표현을 여러 번 읽고 어구나 문장으로부터 의미 있는 진술을 도출하였다. 그 후 의미 있는 진술을 일반적 형태로 다시 진술하였다. 의미 있는 진술과 재진술로부터 구성된 의미를 끌어내는 과정을 통해 주제, 주제모음, 범주를 조직하고, 주제를 관심 있는 현상과 관련시켜 명확한 진술로 최종 기술하는 단계를 거쳤다[14]. 본 연구는 Colaizzi 방법을 통하여 의미 단위를 240개 도출한 후 유사한 속성의 진술을 다시 확인하며 90개의 의미 있는 진술을 구성하였고, 이를 조직하여 최종으로 주제 31개, 주제모음 14개 및 범주 6개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제가 참여자의 경험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Lincoln과 Guba[15]의 엄격성 평가 기준에 따라 일관성, 적용성, 중립성 및 사실적 가치를 점검하였다. 본 연구에서 일관성을 보증하기 위해 Colaizzi[13]의 자료 분석과정의 6단계를 적용하였다. 동일한 상황이지만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간호대학생 3명에게 연구의 분석 결과를 제시

하였을 때, 공감의 피드백을 받아 적용성을 확보하였다.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연구자는 연구의 전체 과정에서 성찰을 통해 선입견을 배제하며 참여자들의 발언을 토대로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가 사실적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현상학적 방법론으로 질적연구를 5편 이상 진행한 경험이 있는 교수자 2인에게 분석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의견을 구했으며 연구참여자들에게 본인의 진술이 분석된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지도 확인한 결과 진술과 일치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3. 연구결과

본 연구 결과, 선후배간 동료교수법의 선배로 역할을 수행한 간호대학생의 경험은 자기 기여, 자기 부담과 자기 성장의 3개 범주로 도출되었다[Table 1].

3.1 범주1. 자기 기여

3.1.1 가르침을 기대하며 준비함

이 주제 모음은 '가르치는 경험에 대해 긍정적임'과 '가르침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음'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는 가르치는 부분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설레임이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제가 알려주고 그 친구들이 모르는 점도 물어보면서 조금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조금 설레기도 했어요.”[참여자 7]

“학생들한테 대학 진학하려면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전에 교육을 해줬었거든요.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자부심이 생겼었어요.”[참여자 6]

3.1.2 선배로서의 역할을 찾음

이 주제 모음은 '선배로서 도움이 되는 것을 인식함', '선배의 주도성이 필요함'으로 구성되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선배로서의 역할에 중심을 두며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려고 노력하였다.

“확실히 첫째 날보다 둘째 날 실습했을 때 애들이 좋아진 게 눈으로 보일 정도였어요. 그래도 가르쳐준 게 도움은 됐구나라는 생각은 확실히 들었던 것 같아요.”[참여자 1]

“저희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교수님이 계속 같이 안 있

으신 것이 좋았어요. (중략) 궁금한 점이 생기면 교수님께 여쭙보면 되고 배운 내용을 후배들한테 알려주면서 더 주도적으로 가르칠 수 있었어요.”[참여자 4]

3.2 범주2. 자기부담

3.2.1 심적으로 부담스러움

이 주제 모음은 ‘기초정보의 부족으로 힘들었음’, ‘지식부족에 대해 걱정함’과 ‘후배들의 적극성에 당황함’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참여자들은 각각 멘토링을 진행함에 자신의 부족함이나 멘토링 자체의 정보 부족으로 부담을 느꼈으며 적극적으로 임하는 후배들을 보면서 놀라는 경험도 하였다.

“후배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렇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가르치려고 하니까 그런 점이 어려웠고. (중략) 어느 부분까지 해야 하는지 그런 것도 약간 애매했고.”[참여자 2]

“멘토링을 함에 너무 부담이 컸었어요. 애네보다 1년밖에 더 배운 게 없는데 제대로 말해줄 수 있을까?”[참여자 8]

“후배가 갑자기 IV 성공했을 때가 진짜 진짜 놀랐어요. (중략) 배우더니 갑자기 3일 차에 빵 하고 성공해 버려서 정말 놀랐어요.”[참여자 1]

3.2.2 마음의 여유가 없어짐

이 주제 모음은 ‘공부시간 부족으로 힘들’과 ‘에너지 소진으로 방전함’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멘토링 수업에 참여함으로 인해 참여하지 않는 학생에 비해 공부시간의 부족하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선배로서 가르쳐주는 과정에서 상당한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소진이 되기도 하였다.

“내가 이걸 하면서 과제랑 시험 등 공부하는 시간을 뺏기는 것 같아 시간이 아까운 것은 아니었지만...촉박한 느낌이 있었어요.”[참여자 8]

“서로 막 활동하면서 알려주다 보니 행사장 같은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런 데서 유독 기 빨려서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참여자 3]

3.3 범주3. 자기성장

3.3.1 선후배가 협력하는 관계로 나아감

이 주제 모음은 ‘관계를 하면서 걱정이 감소함’, ‘서로가 노력하여 만족함’과 ‘후배들과 연결하는 기회가 됨’으

로 구성되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만남을 통해 서로가 알아가면서 보다 만족스러운 결과로 이어졌다고 하였다.

“우리가 믿음직스러울까라는 걱정도 있었어요. 서로 친해져서 이걸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해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웃어넘기게 되었던 거 같아요.”[참여자 8]

“아무리 잘 알려줘 봤자 친구들이 못 따라오고 하면 아무런 결과값이 없는 거 같아요. 같이 노력하고 친구들도 같이 노력해서 좋았던 거 같아요.”[참여자 5]

“코로나 이후로 서로 연결되는 맥이 끊기고 있었는데 연결고리가 되어서 연락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줄 수가 있잖아요.”[참여자 1]

3.3.2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노력함

이 주제 모음은 ‘후배에게 잘 가르쳐주기 위해 노력함’, ‘도움이 되도록 맞춤식으로 이끌어감’과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알려줌’으로 구성되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선배로서 해당 술기를 잘 알려주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면서 후배들이 좀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 또는 1대 1피드백을 주기도 하였다.

“친구들은 아예 처음 하는 활동이다 보니까. 저는 입장에서 배운 것도 많고 이론적으로 배운 것도 있으니까 가르쳐 주려고 따로 정리도 했었어요.”[참여자 2]

“학생들끼리 서로 IV 해볼 때 혈관을 만져보잖아요. 고정을 잘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그거 알려주고 또 움직이는 혈관 있는 애들은 이제 만져보라고 혈관을 어디로 더 찔러야될지 한번 맞춰보라고 하면서 진행했었어요.”[참여자 4]

3.3.3 발전하는 기회로 이어짐

이 주제 모음은 ‘사전교육으로 역량을 키움’, ‘힘들지만 뿌듯함’과 ‘배움을 통해 스스로 더 발전함’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참여자들은 멘토링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 진행되었던 사전교육을 통해 자신의 기술도 높아졌다고 하였다. 또한, 선배로서 진행한 멘토링 수업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뿌듯하였고 이를 통해 자신이 좀 더 발전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하였다.

“솔직히 기본간호학에서 IV 배울 때는 IV 하는 것에만 중점을 뒀지, 정맥 이런 거 별로 알지도 못했던 말이에요. 교수님 강의 듣고 처음으로 IV 를 할 수 있는 곳을

배웠었죠. 뭔가 아는 게 조금 늘어나니 뭐가 물어보면 대답 그래도 더 할 수 있겠겠더라고요.”[참여자 3]
 “제 사람마다 개인차가 다 있잖아요. 조금 서툰 친구들은 서툴고 해서 한 명씩 다 봐주기는 했거든요. 쉽게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중략) 쏟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그래도 친구(후배)가 잘 따라오니 뿌듯하기도 했어요.”[참여자 5]
 “이거(멘토링) 하면서 자신감도 올라가고 실력도 좋아지는 게 진짜로 눈에 보이고 그래서 저한테 되게 좋은 도움이었다고 생각했어요.”[참여자 4]

4. 논의

본 연구는 선후배간 동료교수법의 선배로 역할을 참여한 간호대학생의 경험에 대한 의미를 본질적인 측면으로 심층적으로 탐구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간호대학생의 멘토링 수업 참여 경험은 ‘자기기여’, ‘자기부담’, ‘자기성장’의 3개 범주를 포함하였다.

우선, 첫 번째 범주인 ‘자기기여’는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넘어 멘토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선배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그 기여를 인식하였다.

<Table 1> Experience on senior tutor of among Participants

Theme	Theme clusters	Category
I had a positive experience with teaching	Anticipating and preparing to teach	Self-contributing
I had recognized the value of being helpful as a senior		
I was prepared for the teaching	Finding a role as a senior	
The leadership of a senior was needed		
Consistent teaching was important		
I expected it to be helpful to me		
I developed my skills through pre-training	Feeling overwhelmed	Self-burden
It was tough, but I felt proud		
I struggled due to a lack of study time		
My worries decreased as I built the relationship	Recognition of lack of peace of mind	
I had guided in a personalized way to be helpful		
I made an effort to teach the junior well	Trying to provide practical help	Self-growth
I was surprised by the juniors' enthusiasm		

Theme	Theme clusters	Category
I was worried about my lack of knowledge	Moving toward a collaborative relationship	
I were satisfied as both sides made an effort		
It became an opportunity to connect with the juniors		
I gave specific guidance to help them do better	Leading to opportunities to evolve	
I had developed further on my own through learning		
I struggled due to a lack of basic information		
I was drained due to energy depletion		

이는 유치도노 핵심간호술 선배 동료교수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의 경험으로 가르치는 것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교육자로서 준비되는 기회라고 하였던 연구[2]와 유사하다고 하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선배로서 인식하면서 주도성은 중요하게 제시되었다. 이는 간호대학생이 동료 교수로서 활동하기 위해 학습욕구가 증진되고 학습자원 탐색 및 전략을 적용하도록 돕는 자기주도학습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하였다[16]. 이는 선배가 후배를 가르치는 방식이 아닌 동료가 동료에게 진행하는 부분에서도 주도성의 중요한 부분으로 제시되었다고 하겠다. 간호교육과정에서 학습자 중심으로의 교수 학습방법은 예비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성을 높이고 의사소통능력을 높임으로 임상현장에서도 다양한 상황에 보다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겠다.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성은 문제해결능력을 높이고 이는 임상수행능력을 높인다고 보고되면서 창의성은 중요한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었는데[17] 선배가 후배를 가르치기 위해 맞춤식 정리를 하고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근거기반의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도 제고될 수 있기 때문에 선후배 멘토링 교수법을 활용하는 수업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범주인 ‘자기부담’은 멘토링 프로그램에 선배로서 참여함으로 안면이 없던 후배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일정한 시간도 제공하다보니 관계와 시간 부족에 대해 상당히 부담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가르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쏟아내며 방전이 된 자신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이는 멘토링 학년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학습시간을 맞추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 점을 비추어 볼 때[18], 선배들은 후배들과 수업시간이 달라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조정을 하는

자체로도 많은 에너지를 사용되었을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선후배 멘토링 교수법을 유치노도 핵심 간호술에 적용한 Kang과 Seo[2]의 연구에서 선배의 경험은 자신의 술기능력 향상, 훈련과정과 피드백, 상호만족하는 현장, 자기성찰을 통한 발전의 4개 범주로 나타났다. 선배로서 자신이 기여하는 부분이나 성장의 측면에 대해서는 유사한 결과였다. 다만, 본 연구와 달리 자기 부담의 측면에 대해 '질 높은 피드백 제공의 어려움'으로 1개의 주제만 분석되어 선배들이 인식하는 소진에 대해서는 부각되지 않은 점은 일치되지 않은 결과라고 하겠다.

선후배 멘토링 교수법에 참여하는 선배들의 소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군간호사관생도를 대상으로 한 선후배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 연구[19]에 따르면, 멘토와 멘티 모두 멘토링 프로그램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체계적으로 개발된 멘토 교육프로그램 교육을 받은 후 참여한 선배 멘토는 생활 적응과 공감능력이 상승하였지만 멘토 교육을 받지 않고 참여한 선배는 적응수준은 향상되었으나 대인관계능력은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학생을 위한 동료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20]에 따르면,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멘토는 멘티를 촉진하고 조언하면서 지도를 하는 만큼 멘토와 멘티간의 관계가 프로그램 경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해당 프로그램이 성공하려면 사전에 교수자의 명확한 지침과 방법 제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교수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은 멘토가 멘티에게 보다 적극적이고 우수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고[20]되기 때문에 이들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초반에 참여하는 멘토들을 대상으로 사전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후 멘토링 과정에서 느끼는 심리적 부담이나 시간 관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실제적인 교육지원 전략이나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개발하는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 범주는 '자기성장'으로 선배로서 참여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의 지식과 기술의 역량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후배들을 돕기 위해 각자의 노력을 통해 발전에 이르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선후배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서 자기성찰을 통한 발전을 제시한 연구[2]와 부분 일치하였다. 해당 연구[2]에서 선배는 프로그램을 통해 뿌듯함을 느끼고 자신감이 향상되면서 좋은 간호사가 되는 것을 다짐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다각도로 노력하는 모습과 선배와 후배가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되는 부분이 부각된 것은 다소 차이가 있는 결과였다.

교수진의 교육과 동료교육 학습을 동시에 받는 집단과 교수진만의 교육을 받는 집단으로 자기효능감과 지식 습득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연구[21] 따르면, 멘토로 참여한 경험은 긍정적이었으며 직업 정체성과 동료 간 협업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동료교육 학습을 추가로 받은 집단과 교수진만의 교육을 받는 집단간의 지식 습득이나 자기효능감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대로, 교수지도와 함께 동료멘토링을 받은 학생들은 선배의 지도에 대해 오히려 불안을 호소하였다. 더욱 교수진의 프로그램을 참여할 때, 멘티들은 사전 준비 및 연습을 더 많이 하는 경향도 보였다. 이처럼 교수자가 가르치는 수업과 비교가 되는 방식으로 설정하기보다 학습자 중심의 시선으로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조언하고 지지하는 가운데 프로그램에 대한 의미를 새기면서 뿌듯함을 더하면서 자기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시점부터 세심하게 운영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 선후배 프로그램을 통해 멘토-멘티 모두가 만족하면서 협력하는 가운데, 긍정적인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부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연구 참여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추후 다양한 실습 환경에서 많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멘토링 참여 경험이 장기적으로 학생의 임상수행능력, 직업만족도, 전문성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는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기본간호학 실습 교과목에서 선후배간 동료 교수법의 선배로 역할을 한 간호대학생의 경험의 본질을 파악하여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법의 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선후배 멘토링 참여 경험은 '자기기여', '자기부담' 및 '자기성장'의 3개 범주를 포함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볼 때, 선후배 멘토링에 참여하는 멘토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 멘토를 위한 체계적인 전공역량 사전교육 뿐만 아니라 멘토 역할에 대해서도 분

명하게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선배의 주도성을 최대한 이끌어 주려는 교수자의 지지가 필요할 것이다. 멘토로 참여한 선배들이 긍정적인 경험과 성장은 의사소통을 통하여 후배인 멘티에게 적절한 조언과 지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학습자 주도형 교수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일개 대학에서 기본간호학 수업의 선후배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선배의 경험으로 일반화하는 부분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추후 핵심간호술 뿐만 아니라 임상수행능력을 제고함에 필요한 교과목에 간호대학생의 선후배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반복적인 연구를 제안한다.

REFERENCES

- [1] L.E.Aldinger, C.L.Warger, and P.W.Eavy, *Strategies For Teacher Collaboration*, Michigan: Exceptional Innovations, 1991.
- [2] J.Y.Kang and J.Y.Seo, "A study on the experience of cross-age peer tutoring for core basic nursing skills training in nursing students: Focus on senior peer teachers' experience,"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Vol.5, No.4, pp.79-94, 2021.
DOI: <https://doi.org/10.34089/jknr.2021.5.4.79>
- [3] Y.R.Lee and H.L.Kang, "Effect of mentoring senior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s education on clinical competence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4, No.11, pp.441-448, 2016.
DOI: <http://doi.org/10.14400/JDC.2016.14.11.441>
- [4] J.H.Yang and G.J.Yeom, "Effects of evidence-based intravenous infusion therapy practice education for nursing students applying the peer teaching method between seniors and juniors: A quasi-experimental stud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31, No.3, pp.349-358, 2024.
DOI: <https://doi.org/10.7739/jkafn.2024.31.3.349>
- [5] J.I.Kim, J.H.Lee, and O.J.Chang, "Perceived importance and performance of intravenous fluid therapy by nurses in small-medium general hospital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20, No.4, pp.372-380, 2013.
<http://doi.org/10.7739/jkafn.2013.20.4.372>
- [6]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Core nursing skills evaluation items [Internet], <http://www.kabone.or.kr/reference/refRoom.do>.
- [7] G.H.Park and S.H.Choi, "Effects of open laboratory self-directed practice on knowledge, self-confidence, skill competency, and satisfaction of intravenous infusio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2, No.1, pp.63-71, 2016.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6.22.1.63>
- [8] E.J.Yoon and Y.M.Park, "The effects of reeducation on core basic nursing skills on nursing students' competence, confidence, and anxiety,"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7, No.5, pp.39-45, 2017.
DOI: <https://doi.org/10.22156/CS4SMB.2017.7.5.039>
- [9] Y.R.Yeom and K.B.Choi, "Effects of the reeducation of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s on clinical stres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confidence in nursing skills of senior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2, No.3, pp.283-293, 2016.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6.22.3.283>
- [10] M.R.Yoo, M.Kang, H.Kim, H.L.Han, and J.Y.Choi, "The effects of self-directed practice using peer-tutoring on confidence, performance, and learning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in practicing core nursing skill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3, No.1, pp.27-36, 2017.
DOI: <http://doi.org/10.5977/jkasne.2017.23.1.27>
- [11] S.G.Lee and Y.H.Shin, "Effects of self-directed feedback practice using smartphone videos on basic nursing skills, confidence in performance and learning satisfac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46, No.2, pp.283-292, 2016.
DOI: <http://dx.doi.org/10.4040/jkan.2016.46.2.283>
- [12] S.Y.Kim, "The effects of imagery training on outcomes of clinical competence, voluntary practice time and nursing skill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3, No.1, pp.76-85, 2017.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7.23.1.76>
- [13] P.F.Colaizzi, *Existential-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2nd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44-71, 1978.
- [14] B.H.Kim, G.J.Kim, I.S.Park, G.J.Lee, J.K.Kim, J.J.Hong, M.H.Lee, Y.H.Kim, Y.Y.Yoo, and H.Y.Lee, "A comparison of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ology: Focused on Giorgi, Colaizzi, Van Kaam method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29, No.6, pp.1208-1220, 1999.
- [15] Y.S.Lincoln and E.G.Guba,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pp.310-334, 1985.
- [16] I.S.Jung, "The effects of peer-tutoring activities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1, No.6, pp.127-136, 2021.
DOI: <https://doi.org/10.22251/ilcci.2021.21.6.127>
- [17] H.S.Park and J.Y.Han, "Factors influencing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20, No.4, pp.438-448, 2013.
- [18] M.O.Yoon and Y.S.Ju, "The effects of peer mentoring learnings-based preclinical OSCE program on

- self-confidence on core basic nursing skills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5, No.7, pp.285-295, 2017.
DOI: <https://doi.org/10.14400/JDC.2017.15.7.285>
- [19] M.O.Kwon, J.S.Na, E.K.Jeong, Y.G.Kwon, and H.J.Hong, "The effect of inter senior-junior mentoring and mentor education program on Korea armed forces nursing academy cadets' adjustment, stress, relationship and empathy ability," *Journal of Military Nursing Research*, Vol.35, No.1, pp.78-89, 2017.
DOI: <https://doi.org/10.31148/kjmnr.2017.35.1.78>
- [20] S.Lim, L.X.Min, C.J.W.Chan, Y.Dong, K.Mikkonen, and W.Zhou, "Peer mentoring programs for nursing students: A mixed methods systematic review," *Nurse Education Today*, Vol.119, pp.306-319, 2022.
DOI: <https://doi.org/10.1016/j.nedt.2022.105577>
- [21] K.B.Brannagan, A.Dellinger, J.Thomas, D.Mitchell, S.Lewis-Trabeaux, and S.Dupre, "Impact of peer teaching on nursing students: perceptions of learning environment, self-efficacy, and knowledge," *Nurse Education Today*, Vol.33, No.11, pp.1440-1447, 2013.
DOI: <https://doi.org/10.1016/j.nedt.2012.11.018>

이 윤 주(Yun Ju Lee)

[정회원]



- 1997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2008년 8월 : 가톨릭대학교 의료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14년 2월 : 인하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인천재능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정신건강, 직장 내 괴롭힘, 대인관계, 자살

양 정 하(Jeong-Ha Yang)

[정회원]



- 1997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2001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4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22년 4월 ~ 현재 : 수원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기본간호, 교수학습, 회복탄력성